

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산문)

제목

내 이름값, 973 원

그날 저녁, 우리 집엔 평소에 듣기 어려운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6시 50분!! 이제 시작한다."

경상도 출신에 내성적인 성격, 말수가 없었던 아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드라마에서는 밥 묵자, 자자.라는 뭉뚱한 연필심 같은 대사도 하던데, 아빠는 그 두 마디 대사조차 없는 조용한 경상도 출연자다.

그런 아빠의 목소리가 한번 더 집안을 울린다. 급한 마음은 시니컬하게 목소리 끝을 양갈래로 찢어 놓는다.

막 퇴근을 마친 나는 세수를 하다가 물기를 뚝뚝 흘리며 나오고, 그 물기에 잔소리를 하며 엄마가 주방에서 냄비뚜껑을 덮는다. 덮어진 냄비 뚜껑에 아쉬운 눈길을 보내며 두 동생도 착석을 마친다.

오늘은 내가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날이다.

아빠는 입을 벌리고 있는 비디오플레이어에 공테이프를 먹이 주듯 정성스레 넣어주고, 레코드라 쓰인 빨간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스탠바이를 한다.

띠.띠.띠.띠- 7시 정각에 프로그램 타이틀이 돌아간다. 아빠의 손가락도 움직인다. 가족들은 박수를 친다. 리모컨 버튼을 최대로 올린다. 우리가 원하는 건 비싼 돈을 주고 모신 출연자가 아니다. 자기 몸무게만 한 카메라를 메고 촬영한 카메라맨의 화려한 영상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성우 목소리다.

자신의 딸이, 언니가, 누나가 밤을 새우며 쓰고 지우며 채운 내레이션 멘트였다.

5개의 배꼽들도 눈치는 있는지 꼬르륵 소리 한번 내지 않는다.

땀내가 가득한 1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스크롤 자막이 올라간다.

야속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자막행렬을 행여 놓칠까 소파에 나란히 앉은 가족들은 손에 손을 맞잡는다. 드디어 내 이름이 화면 맨 밑에서 중간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가족들은 승천이라도 할 듯 맞잡은 손을 하늘로 올리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른다.

공복 파티에 지친 가족들이 포만감으로 잠든 밤, 나는 거실에서 비디오 플레이어의 버튼을 누른다.

아빠에게 받은 비디오테이프를 영양제처럼 조심스레 넣어주고 리액션을 기다린다. 음을 소거한다.

늦은 밤 매너가 아니다. 소리는 필요 없다. 테이프는 국수를 빨아들이듯 빠르게 감겨간다.

스톱. 내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플레이한다. 스톱. 내 이름이 쓰여 있는 화면을 정지하고 내 이름 석자를 뚫어져라 본다. 늘 보던 자음과 모음, 내 이름 석자만 정지된 채로 출연하는 드라마는 아침까지도 채널을 바꾸지 않았다.

"한국방송작가협회입니다. 입회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건필을 기원하겠습니다."

평생 물고 빨고 애정표현이라고는 1도 없던 아빠는 비디오테이프 옆구리에 내 이름 석자를 붙이며 애정을 뽐어냈다. 우리 집엔 매주 1개씩 비디오테이프가 출산되었지만, 다복하지는 못했다.

아빠는 우연히 지나가는 감기에 발목을 잡혔고, 급성 폐렴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하면서 60대 초반 하늘로 올라가셨다. 네모난 화면 속, 내 이름이 하늘로 올라간처럼.

메인작가가 되고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저작권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가입은 쉽지 않았다.

4년 이상 집필, 메인작가 경력, 동료 추천까지. 내 이름 석자를 인정받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그리고 아빠가 정성으로 저장했던 이름 세 글자는 당당한 증명서가 되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로 승인완료 전화를 받으면서 물어본다.

"근데요. 작가협회 가입하면 뭐가 좋은가요?"

나는 멍청이~같은 질문에 담당자는 웃는 건지 웃음을 참는 건지, 성대가 한껏 부푼 목소리로 답을 주신다.

"작가님이 쓰시는 소중한 글은 작가님 '이름'이고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작가님이 뼈를 갈아 만든 이름 석자와 밤을 낮 삼아 채우신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작가님 글의 어떠한 문장도, 마침표 하나라도요. 작가협회가 울타리가 되어 보호와 응원으로 곁에 있겠습니다. 건필하세요."

[저작물 사용료 지급내역]

2005년 하반기

실 지급액 : 144,982원

방송 3사 2005년 하반기

실 지급액 : 365,589원

2006년 8월 1일, 처음으로 저작물 사용료라는 명칭의 글로 소득이 도착했다.

이 글로 소득의 근거는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비디오판매, 재방송료, 복제배포 전송료, 인터넷사용료이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원버튼만 누르면 몇백 개가 되는 채널이 24시간 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본방사수를 놓친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야 했다. 내가 만든 방송프로그램의 비디오테이프 구매 고객님들은 주로 해외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 해외 이민자들에게

는 이 비디오테이프가 그들 삶의 유지어터가 된다고 한다. 그러다 종일방송이 되면서 재방송이 되고, 다운로드로 저장이 되고, 다시 보기로 재생된 흔적이 나에게 도착한 것이다.

첫 저작물 사용료를 받았을 때는 '진짜 내가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소하지 않았던 입금액은 가족들이 저작권료 입금 축하 파티를 하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입금은 금액은 더 높아졌지만 나의 감흥은 첫 번째만큼 높지 않았고, 나는 월세를 받는 임대인처럼 당연하게 저작권료를 통장 구석에 밀어두었다.

"작가 그만하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강산이 화려변신을 몇 차례 하고, 나는 짧지 않은 시간을 작가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글을 쓰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쉬지 않고 달려가기에 통장의 숫자는 채워졌지만 머릿속에 입주한 단어들은 하루가 다르게 비워져 갔다. 공부, 독서, 휴식이라는 입금을 미루며 나는 염치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달라, 모두가 놀랄 쇼킹한 플롯을 달라며 떼를 썼다.

아이템을 받아 들면 아이디어보다 불안함이 밀려왔고, 불안함은 다른 이들의 글을 훑쳐보기 시작한다.

밤을 새워도 내 안에서 한 방울 착즙은 어려웠고, 다른 이들이 만든 단어, 문장, 카피들을 자료조사라는 타이틀아래 카피를 한다. 이쪽에서 슬쩍, 저쪽에서 슬쩍 한 문장을 하나씩 빼내와 스리슬쩍 한 편을 완성한다.

모방은 창조의 엄마라고도 했잖아. 그 문장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써 내려 갔다.

그러고도 나는, 내 이름을 자막에 올렸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이 부끄러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글이 아니라, 그 글 아래 붙어있는 내 이름 석자라는 걸 알았다.

바닥이 드러나는 머릿속의 아이디어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양심, 내 인생의 바닥이었다.

이건 아니다. 그만하자.

그리고 나는 작가라는 명함을 버렸다. 작가라는 이름을 가차 없이 버렸다.

[저작물 사용료 지급내역]

KBS미디어 2024년 상반기 복제배포 전송료

실 지급액 : 973원

입금일 : 2024-12-18

출입이 단조로워진 나의 통장에 알림이 뜬다.

2024년 저작권료 973원.

방송국을 그만둔 지는 10년이 넘었다.

나의 어떤 작품을, 어디에 사는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재생 버튼을 눌렀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973원은 가벼운 금액이었지만, 누군가 여전히 내 글을 보고 있다는 증거였고,

누군가 그 글에서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왔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다시 작가로 돌아가기로 한다.

2025-01-17 브런치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스토리의 작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아빠가 정성스레 구워주시던 비디오테이프 안에서,
화면 맨 아래에 있다가, 천천히 위로 떠오르던 내 이름 석자를 꺼낸다.

저작권료 973원.

당당하게 만들어가야 할 내 이름값.

나는 다시, 작가로 돌아간다.